

# 수능완성 읽기

안녕하세요, 김양봉입니다.

국어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수능완성 읽기’라는 제목 그대로 그냥 수능완성을 읽을 계획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단어, 저런 문장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읽어도 괜찮은지 등등 지문 분석이나 해설이 아니라,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사고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다음 규칙을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1. 한 번에 최대 두 문장까지만 읽고 작성한다.
2. 한번 작성한 내용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오타 수정 제외)
3. 사후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내용이 체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읽으면서 제 생각을 보여드리기만 할 거거든요.

당연히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규칙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건 그저 수년간 많은 글을 읽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또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독해 도구나 방법론에 대한 암기 없이, 그냥 가볍게 저와 함께 수능완성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통해 지문에서 등장했던 논리, 배경지식, 연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피드백은 자료의 내용, 구성, 형식 등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든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 수능완성 읽기

[1문단-1]

(가) 자유주의는 <사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긴장을 내포한다.

처음부터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는 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로 분류한 뒤 간단한 특징도 제시하고 있네요. 심지어 그 특징은 사적-공적으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요. 독서 지문에서 이런 정보를 만나면 일단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 사적 자율성	· 공적 자율성

근데 단순히 분류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뉜다.”가 아니라 “~ 사이의 긴장을 내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유주의 안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분류되었으니 이후 내용에서는 각각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어 볼게요. (안 나오면 이 분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때 이 스탠스를 버리면 됩니다.)

[1문단-2]

이는 근대 사회가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이니, ‘이’가 가리킬 대상은 하나 뿐이겠죠? 잠깐 생각해 보면, 산업 혁명은 시장과 관련이 있는 느낌이고,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연결 되겠죠. 시민 혁명은 정치와 관련 있는 느낌이니 정치적 자유주의와 연결될 것 같구요. 아무튼 ‘자유주의 안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 혁명을 두 번 거쳤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하

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별거 아니지만 @가 ‘기인’이기 때문에 @~e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몹시 높겠네요. 만약 @가 ‘기인한다’였다면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구요.

[1문단-3]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소유권을 중시하는 시장은 산업 혁명에 의해 발전되어 경제적 자유주의의 기초로 확립되었다. 또한 시민 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서 자유·평등·박애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현시켰다.

여기서부터는 색을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1문단-1]의 마지막에서, 대상을 분류했으니 각각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읽겠다고 했죠. 그리고 [1문단-2]에서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을 보고 “이 분류에 대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가)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분류는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물론 아직 1문단일 뿐이지만, 어쩌면 ‘자유주의에 대한 무언가’보다 ‘두 자유주의의 분류’가 이 지문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 사적 자율성	· 공적 자율성
· by 산업 혁명	· by 시민 혁명

우선 정리한 뒤, [1문단-1]에서 말했던 ‘이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2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1]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서 자유를 파악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에서 강조되었던 재분배적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이어졌다.

먼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 ① 자유 =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
- ② 재분배적 평등주의 비판

①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이겠죠. 근데 그럼 애네가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지문이 주는 정보에 근거해서 생각하자면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럼 궁금해져야 해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 이런 궁금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그 답을 찾으려 하지는 말고, "나는 이게 궁금한데 나중에 설명해주려나?" 정도로만.

실제로 나중에 설명해주면 기다렸던 내용이니 훨씬 잘 읽을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나중에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작 세 번째 문제의 청자 2처럼 아쉬움을 드러내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자율성</li> <li>· by 산업 혁명</li> <li>· 자유 = 침해,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자율성</li> <li>· by 시민 혁명</li> <li>· 자유 = ?</li> </ul>

[2문단-2]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국가가 복지라는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재분배적 평등주의를 비판한 내용이네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를 침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 보았는데 이 문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문단-3]

특히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밀턴 프리드먼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반갑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목적'과 '수단'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선은 지문의 내용에 충실해야 하니, '경제적 자유는 정말 중요한데, 경제적 자유가 성취되어야 정치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문단-4]

그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치권력이 개인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차단되어 권력이 분산된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경제적 자유의 ⑤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도 밀턴 프리드먼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경제적 자유의 토대부기 위에서만 정치적 자유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2문단-3]의 '경제적 자유는 ~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2문단-3, 4]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정치적 자유도 성취될 수 있다."이며, 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밀턴 프리드먼을 데려와서 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니 결국 이 선생님의 견해는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표할 만한 주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2문단-5]

경제적 자유에 대한 훼손이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개인들 간의 상호 자발적인 거래와 이를 통한 상호 이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 실현 -> 정치적 자유 실현 가능

경제적 자유 훼손 -> 정치적 자유 제한.

결국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네요. 여기에 추가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치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팔고 해서 상호 이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내용 일치 문제의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3문단-1]

반면/ <자유와 자치를 연결>해 이해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2문단은 경제적 자유주의, 3문단은 **정치적 자유주의**입니다. ‘반면’이 나왔으니 어떤 면이 다른지 확인해야겠죠?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치에도 좋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 정치적 부자유가 발생한다.

‘보장’과 ‘확대’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윈윈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문이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으로 제시되었겠지만 주제 통합 지문이니 (나)의 어떤 관점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사례를 해석하는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자유와 자치를 연결해 이해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3문단에서 꼭 찾아야 할 정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데?”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주네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요즘 독서 지문들 사이에서 과감한 생략이 유행이라고 해도, **수능 대비를 위한 독서 지문이라면 절대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대하며 다음 문장을 읽어 볼게요.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자율성</li> <li>· by 산업 혁명</li> <li>· 자유 = 침해,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li> <li>· 경제적 자유</li> <li>=&gt; 정치적 자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자율성</li> <li>· by 시민 혁명</li> <li>· 자유 = 자치 (?)</li> <li>· 경제적 자유</li> <li>=&gt; 정치적 자유 x</li> </ul>

[3문단-2]

**이러한 관점**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법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네, 나왔네요. 정치적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란,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법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치와 연결해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제 알 것 같구요. 그리고 이를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혹시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아마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배경지식의 영역이기도 한데, 뉘앙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종종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적극적 자유**는 “나 저거 할래”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의 표현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반면 **소극적 자유**는 “나 건드리지 마”의 느낌입니다. [2문단-1]에서 말한 것처럼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 의문에 대한 답. 경제적 자유에서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자율성</li> <li>· by 산업 혁명</li> <li>· 자유 = 침해,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 (소극적)</li> <li>· 경제적 자유</li> <li>=&gt; 정치적 자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자율성</li> <li>· by 시민 혁명</li> <li>· 자유 = 자발적 정치 참여, 스스로 결정 (적극적)</li> <li>· 경제적 자유</li> <li>=&gt; 정치적 자유 x</li> </ul>

[3문단-3]

**간섭의 부재**가 아닌/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가 실현된 상태로 본 것이다.

여기서 ‘간섭의 부재’가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걸 눈치채시면 좋아요. 자유란, 누가 날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3문단-4]

특히 마이클 샌델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을 침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표로는 밀턴 프리드먼 선생님, 정치적 자유주의의 대표로는 샌델좌가 등장했습니다. 2문단에서와 같은 논리로, 마이클 샌델의 견해=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읽을게요.

샌델좌의 주장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는 물론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네요. [3문단-1]과 유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3문단-5]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 이러한 불평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눈앞의 생계와 자기 이익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적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본 것이다.

샌델좌의 비판 내용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 (= 경제적 자유주의)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화

-> 먹고 살는 것에만 집중

->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약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는 [3문단-1]의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짐", [3문단-4]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방해함"과 같은 맥락이죠.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겁니다.

[3문단-6]

그는 시장 거래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길 때 / 돈으로 사거나 팔아서 안 되는 것을 고민함으로써 인간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라. 웬지 [2문단-5]의 마지막 문장과 관련이 있는 문장 같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2문단-5]에서 프리드먼 선생님은

경제적 자유 보장

-> 상호 자발적 거래

-> 상호 이득

이런 논리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샌델좌는 아닐 겁니다.

경제적 자유 보장

-> '뭉든 사고 팔아도 되나?'

-> 장기매매, 인신매매 등

-> 인간적 가치 상실

샌델좌는 이런 맥락으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 사적 자율성	· 공적 자율성
· by 산업 혁명	· by 시민 혁명
· 자유 = 침해,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 (소극적)	· 자유 = 자발적 정치 참여, 스스로 결정 (적극적)
· 경제적 자유 => 정치적 자유	· 경제적 자유 => 정치적 자유 x
· 프리드먼 선생님	· 샌델좌

지문을 읽으며 열심히 작성한 이 표가 되겠네요.

[1문단-1]

(나)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라는 노동 ©재편 양식의 완성으로서 20세기에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이다.

중심 소재가 될만한 포드주의가 등장했고, 네모까지 달고 있네요. 포드주의에 대한 정보가 좀 나옵니다.

① 테일러주의의 완성형

② 20세기에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이쪽 관련 공부를 꽤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만 '수능완성 읽기'의 취지에 맞게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다고 가정하 채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경영학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수험생은 포드주의, 테일러주의와 같은 단어가 낯설 겁니다. 지문과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뒤에 설명을 하겠죠.

포드주의가 뭐지?

-> 테일러주의의 완성형이네.

-> 그럼 테일러주의는 뭔데?

-> 중요한 거면 뒤에 설명하겠지.

이런 흐름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포드주의나 테일러주의가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설명을 할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겠죠. 후자의 경우는 앞으로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저는 포드주의가 (나)의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드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테일러주의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춰 읽겠습니다.

[1문단-2]

'과학적 관리'로 일컬어진 테일러주의는 노동 활동을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함으로써,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하고자 했다. 그 결과 =>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구분은 구상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실행에 종사하는 단순 기능공의 구분으로 전환되었다.

여긴 첫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음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노동 활동 = 구상 + 실행

으로 분리했는데, 그 이유가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노동자를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 나누고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첫 문장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한 사람이 A라는 노동 활동의 '구상'과 '실행'을 모두 맡아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A의 고수, 혹은 장인이 되겠죠. 이걸 지문에서는 '숙련공'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테일러주의는 '숙련공'을 없애기 위해 구상과 실행을 구분했구요. 그 결과 더 이상 A의 장인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A의 구상 담당', 'A의 실행 담당'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1문단-3]

이에 더해 포드주의는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을 <자동 기계 시스템에 통합시킨 일관 생산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테일러주의를 완성했다. 즉 노동의 전 과정이 컨베이어 장치와 공장 기계에 통합되고, 노동자의 배치는 기계 시스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제부터는 포드주의에 대한 설명이지만,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의 완성이라고 했으니 앞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읽으며 정보를 추가하면 되겠죠.

테일러주의는 노동 활동의 분리를 통해 노동자를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포드주의는 이제 여기에 기계 시스템을 끼었었네요.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을' 자동 기계 시스템'에'

통합시켰다는 것은, 자동 기계 시스템이 메인이고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 즉 노동자들이 서브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구요. 뭔가... 사람보다 기계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나네요.

[1문단-4]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성은 11배 상승했으며, 이는 철강, 유리, 고무 산업 등 관련 산업 부문들로도 확산되었다.

'생산성의 향상'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문단-1]

그러나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획일적 작동이 전체 집단의 작업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다.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노동자의 작업 통제권이 상실되었다.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쓸데없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볼까요?

노동의 전 과정이 기계에 통합되고, 노동자의 배치도 기계에 의해 결정되고(1문단-3), 작업 리듬도 기계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자들은 이제 거기에 켜서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일하고 멈추면 쉬고. 이걸 '노동자의 작업 통제권 상실'로 표현한 것이구요.

[2문단-2]

노동자의 **직무 자율성**을 박탈하여 개별적 태업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빼앗긴 권력을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 밖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작업에 대한 통제권 = 직무 자율성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직무 자율성 박탈

-> 개별적 태업 불가

-> 작업장에서의 권력 상실

-> 노동자들 간의 연대 필요 (작업장 밖)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즉 직무 자율성을 권력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권력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연대하여 권력을 찾기 위해 작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2문단-3]

또 다른 문제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생산성의 상승이 공급은 지속적으로 팽창시킨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찾아 작업장 밖으로 떠난 노동자들의 여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걸 그저 '포드주의로 인한 문제 1'이었고, 지금부터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성 상승 -> 공급 폭발

but 수요는 상대적으로 정체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저처럼) 이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경제 개념 가져오지 않길 바라며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2문단-4]

특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성 상승**은 **과잉 생산**의 문제를 낳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거대한 간극은 **세계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과국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성 상승'이라는 녀석이 저지른 만행들입니다. 과잉 생산,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 대전. 오우...

다행히도 경제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3문단-1]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자본주의 황금시대**라고 일컫는다.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느낌...? 포드주의가 제2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종전 이후에는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원인이기도 했다는데... 이게 되네.

㉠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둘 사이 관련성이나 비교할 만한 점이 크게 없는 것 같으니, 둘을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 ㉢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것 같아요.

[3문단-2]

또한 이 시기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전쟁은 초강대국 사이에 핵전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억제되었고, 얼어붙은 국제 상황은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국제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

자본주의 황금시대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냉전 덕분에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아주 살기 좋았겠네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살기 좋았으니 '자본주의 황금시대'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가)의 핵심이었던 '경제'와 '정치'가 스멀스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집중해서 읽어 볼게요.

[4문단-1]

그렇다면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쟁 이전과 달리 어떻게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3문단-1]에서는 '이게 되네' 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지문에서 굳이 다뤄주겠다고 하니 잘 읽어 봅시다.

[4문단-2]

문제의 해답은 **과국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과국. 앞에서 딱 한 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단어나 표현은 위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시험칠 때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지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2문단-4]에서 설명한 파국의 원인은 이겁니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 정체

- > 생산성 상승
- > 과잉 생산
- > 공급과 수요 간의 간극 거대화
- > 세계 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

풀어서 설명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포드주의로 인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물건을 너무 막 찍어내게 되었고,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그대로이니 공급과 수요 간의 간극은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 세계 대공황에 제2차 세계대전.

여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고 하니 어떤 부분을 반성해서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봅시다.

[4문단-3]

반(反)파시즘과 평화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反)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본주의에 삽입된 복지 국가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평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에 삽입되어 복지 국가 모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복지 국가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라면 '반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본주의에 삽입'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복지 국가 모델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더 찾아보죠.

[4문단-4]

요컨대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존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의 이윤을 제한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종전 이후 받아들여졌다.

그냥 놔두니까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겠다.

이게 전부네요. [4문단-2]에서 설명했던

노동자의 실질 임금 정체

- > 생산성 상승
- > 과잉 생산
- > 공급과 수요 간의 간극 거대화
- > 세계 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

이 과정이 전부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4문단-5]

이러한 국가의 시장 개입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타협에 기초했다. 고용주는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실질 임금 상승에 동의했고, 노동자 조직들은 자본 투자를 유인할 정도의 이윤 확보에 합의한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타협

= 고용주(자본가): 생산성 상승하면 돈 더 줄게

노동자 조직: 너 투자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해줄게

사실 지금까지 저는 '실질 임금'이라는 단어를 애써 무시한 채 읽어 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인 임금과 다른 의미지만, 1) 저는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는 독자이고, 2) 지문에서 실질 임금의 개념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3) 실질 임금과 구분되는 요소인 명목 임금이 지문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어나 개념의 명확한 의미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지문에서 '실질 임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 정체'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성 상승은 과잉 생산의 문제를 낳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되어 있지만 않았어도 생산성이 상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 저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도)

[4문단-6]

이에 따라 국가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동권적 규제와 사회 보장 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협상력을 인정했다.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져온 대량 생산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국가의 시장 개입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타협에 기초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이 타협하는 상황에서, "어, 야! 너네 그렇게 타협했어?" 하며 끼어들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들을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냥 요약하는 문장인 것 같구요. 이렇게 다 읽고 보니 뭔가 찝찝한 게, (가)와 (나)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소극적 / 적극적 개념]

“나 건드리지 마”와 “나 저거 할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권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유권이 있으며, 방어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적극적 권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구권이 있고, 말 그대로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실질 임금 / 명목 임금]

지문에서는 개념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작년 수능에 경제 지문이 등장했지만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명목 임금은 받는 화폐액을 의미합니다.

실질 임금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text{실질임금} = \frac{\text{명목임금}}{\text{물가지수}} \times 100$ 으로 나타낼 수 있구요.

여기서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시점의 물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예시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000원짜리 컵라면만 먹고 사는 양봉이가 2021년에는 한 달에 4,00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물가가 올라 그 컵라면이 2,000원이 되었어요. 양봉이 월급은 4,000원 그대로구요.

이런 상황에서, 양봉이의 명목 임금은 4,000원 그대로지만, 2021년에는 한 달에 컵라면 4개를 살 수 있었지만 2022년엔 2개밖에 못 사겠죠.

위의 식에 대입하면  $\frac{4,000\text{원}}{200} \times 100 = 2,000\text{원}$ .

명목 임금은 그대로지만, 실질 임금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예시처럼 실질 임금은 실질적인 구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작년에는 몇 개 샀는데, 올해에는 몇 개를 살 수 있냐?” 이런 느낌이죠.